



완성은 다시 처음이다

시간성에 주목하는 작가 David B. Jang

2019광주아트페어에서 특별한 작품을 관람했다. 무심코 건다가 동판을 부식한 작품 앞에 섰다. 황금색의 동판이 적당한 깊이로 부식되거나 날카로운, 혹은 무딘 칼날로 굽힌 흔적이 레이어되어 있는 작품이었다. 지수화풍(地水火風)이었다. 생명이 다하면 원래의 형질인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불교세계관이다. 삶은 공(空)이며 결국은 그것이 생명성이 있든 없든, 모든 형상화한 것들은 허(虛)다. 이미 완성된 생산물인 동판은 완성이라는 끝을 가졌지만 부식되고 해체되면서 다시 허(虛)와 무(無)로 돌아갔다.

두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동판으로 지수화풍의 영감을 준 작품은 갤러리 소속으로, 또 한 작품은 페어 밖에 설치된 특별전이었다. 설치작품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작가의 작품을 완성하고 있었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작품은 다시 처음의 원소인 셈이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과 끝

작가를 어렵게 만났다. 데이비드는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열세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College of Visual Arts)에서 예술을 전공했다. 작가는 자신을 가르켜 1.5세대라고 웃었다.

작가는 “불교적인 의미는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 작업과 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완성된 어떤 것보다는 완성에서 다시 원소로 돌아가는 것. 물론 내가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지만 원소와 분자가 어떤 완성품을 만들어 낸다면 내가 하는 작업은 완성에서 다시 처음의 자리인 원소와 분자로 역추적해가는 것이다.”고 작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코팅된 캔도 그가 즐겨 작업하는 소재이다. 코팅된 살갓을 벗겨내서 원 상태의 알루미늄으로 돌려보내는 것. 작가는 “시간을 지속하기 위한 코팅을 벗겨내면 또 다른 원소의 시간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했다.

작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산업 및 상업 주조물을 재료로 그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체, 분해하여 역순환, 또는 복원화를 피하는데 작가는 이 모든 과정을 퇴화(deterioration)로 규정한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과 유한성의 한계에서 오는 물질의 변형과 퇴화가 인간 생존 질서와 삶의 기술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작업관과 직결된다.

원소의 완성은 그 자체인 셈이다. 시간과 공간 구성을 쓰임새 있는 어떤 것으로 형태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형질은 변하지 않


는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윤회 같았다. 불교를 알지 못한다는 작가의 말이 떠올랐지만 결국 작가의 작업은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모든 것의 진리는 통하는 법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회전

기다란 수십 개의 붉은 줄이 한 몸처럼 서로 꼬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줄을 꼬게 하는 것도 풀리게 하는 것도 팬이 일어내는 바람이었다.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돌며 꼬고 풀리고를 반복적으로 해내는 팬은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관한 설명이었다. 시간의 반복에 대해, 그리고 유한할 것 같은 그 반복이 결국은 언젠가는 마침내 멈출 것이라는 예고도 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팬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유한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었으면 바람이 있었지만 꼬이며 다시 풀리는 붉은 줄 안에 사람이 들어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 위안을 가졌다.

작가는 “어렸을 때 내가 본 세상의 가장 완전체는 구름이었다. 등을 땅에 대고 누워서 구름을 바라보는 것은 펍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공간을 채우던 구름,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어떤 형태를 만들기도 했던 구름, 그러다가도 바람과 함께 금세 사라져버리는 구름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며 “작업의 근간은 구름이었다. 구름처럼 형태를 완성했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것.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면서 완성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과정과 물성이 현재의 내 작업을 이끌어낸다.”고 말했다.

액체, 기체, 고체가 사람의 삶과 같다. 가장 완전한 존재이면서 가장 놀라운 존재인 셈이다. 

범현이 편집위원 baram8162@nate.com



Prevaricate (extended) 464×875×300cm(dimensions variable)
electric fan, trimmer line, cpu fan, motion sensor 2014-2019